

국제재해경감의 날 사무총장 메시지



국제재해경감의 날 메시지에서 사무총장 반기문씨는 샌다이세계회의에서 같은 날 사이클론 팜이 강타한 바누아투의 대통령 솔로몬 룬스데일씨와 만남을 회상하였다.

올해 국제재해경감의 날은 전통·토속·현지의 생존지식의 힘을 기리려는데 있습니다.

2015. 3월 샌다이 UN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나는 바누아투 대통령 볼드윈 룬스데일씨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날 바누아투는 태평양지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폭풍의 하나인 사이클론 팜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폭풍의 힘은 큰 인명피해가 있으리라는 걱정으로 이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지역 소재로 전통방식대로 지어진 사이클론 대피소가 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전통·토속의 생존지식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파괴적인 기후,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려는 지역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카메룬에서는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기술이 많이 필요치 않는 현지 생존지식, 옥수수과 콩을 심기 전에 담가 놓음으로써 가뭄에 대처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관습, 옥수수나 씨앗에 두 달 동안 재를 뿌려 해충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는 현지에서의 그런 재해위험경감 노력들을 합한 것입니다.

북극지역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인지하기 위해 토착민의 생존지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에서 일어나는 것이 북극에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 식품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기후변화가 북극 주민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나타난다는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도시화, 인구급증, 생태계 파괴, 온실가스 배출 등의 영향에 대한 현지 생존지식은 특히 점점 재해가 기후와 날씨에 연관되어가는 작금에 중요합니다.

센다이강령은 지역사회의 재해위험경감 참여의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전통지식이 재해위험경감에서 과학적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방재력 강화는 또한 2030년까지 우리 노력들이 건강한 지구에서 빈곤 종식과 번영 공유를 지도할 새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주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제재해경감의 날, 크고 작은 지역사회들의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재해위험경감과 그들의 귀중한 생존지식의 공유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Date: 12 Oct 2015

Sources: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